



광주항쟁 30주년에 5·18 사진전 여는 독일인 사진가

# Matthias Ley

한 국인도 잊어가는 지난 역사를 기록하는 사진가가 있다. 민주화의 주춧돌이었던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독일인 사진가 마티아스 레이(Matthias Ley, 45)씨다. 마티아스 씨는 현재 일본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20년 동안 포토저널리스트로 일했다. 광주를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그가 광주의 아픈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민중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5·18이 왜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한국인 부인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숙고한 끝에 카메라로 담아내야 할 30여 명의 인물과 38곳의 사적을 간추려 냈다. 그리고 광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티아스씨는 광주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 나와 있는 광주 관련 사진집들을 미리 검색, 열람하였고, 그것과 관련된 증언록들을 전부 읽었다. 그리고

광주에 가서 그 당시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해야만 했던 희생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인터뷰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을 직접 찾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한다. 이미 30년 전의 일이고 살아있던 희생자들도 하나 둘 씩 세상을 떠난 데다가 남아 있는 증언자들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 희생자들을 찾은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과 피로 겪었던 광주 항쟁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한 독일인 앞에서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그리고 인터뷰 후에는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 이삼일씩 몸져 눕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조비오 신부, 박남선 시민군 대장, 홍성담 민주화가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부터 평범한 일반인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동트기 전 금남로와 늦은 밤 컴컴한 골목길까지 당시 시대상황을 조명할 수 있는 광주의 모습들을 Landscape 형식으로 작업하였다.

마티아스씨와 부인 김정희씨는 이 프로젝트를 사비를 들여 작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인류 보편의 것으로, 다 함께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인도 하기 힘든 일을 독일인이 대신 해 내고 있는 것이다.

## 광주 항쟁 30년 전시와 사진집 계획

마티아스씨는 5.18 광주 항쟁이 3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서 취재하거나 촬영한 것들을 자국에 돌아가 발표하고 보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마티아스씨는 자기가 경험한 광주 시민들의 따뜻한 감수성과 환대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리고 이 역사적 프로젝트를, 한 명의 희생자라도 더 살아있을 때 기록해야 한다는 시대의 소명의식으로 한국에서도 발표하고 사진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마티아스씨는 광주에서 Portrait 작업과 Landscape 작업을 함께 하였는데 사진을 찍는 동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참혹한 흔적과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30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의 광주는 너무나도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오히려 그 당시의 505 보안대, 도청, 종합병원, 빌딩 등은 현재까지 비어 있는 채로 그대로 있다. 그래서인지 그 건물에 들어가면 30년 전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영혼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다고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505 Torture Interrogation Room



Sangmudae Prison Cell 45



Abandoned Army Hospital



Gang Gil-Cho

마티아스씨는 5.18재단의 초청을 받아 5월에 그동안 작업했던 광주 Project를 가지고 5월에 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마티아스씨는 희생자를 인터뷰 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너무나도 온화하게, 담대하게, 부드러운 어조로 그 시기의 일들을 이야기 해주는 희생자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 말로 다 하기 힘든, 전해 듣기만 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심한 고문을 겪고 또 그 당시의 광주항쟁을 온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희생자이면서도 그토록 침착하고 부드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였을 때, 모든 풍파를 내 것으로 다 끌어안았을 때 나오는 것 같은 아우라와 감격이 마티아스씨를 참 고무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광주의 시민들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들은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들이며, 신념을 지킨 자들이라고 했다.



Remembering Gwangju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죄 없는 무수한 영혼들의 피의 대가였는지 상기하면 마음 한 곳이 숙연해진다. 이것이 그저 과거의 것으로, 지난 일로 이 세대의 기억 속에서 희석되어 가는 것이 가슴 아프다.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처절한 울림은 흐려지고 몇 남지 않은 희생자들까지 세상을 떠난 누가 이 역사를 기억해줄까?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 역시 이 일을 직접 겪지도 않았고 역사 책 속에서 한 줄 역사로 배우지도 않았으며, 국적마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다.

마티아스씨는 이 광주 프로젝트를 끝낸 후 내년엔 부인과 함께 독일로 건너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양국에 관한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

글 · 권지현 객원기자



마티아스씨와 그의 부인 김정희씨